

2012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11.21(수) 15:00~17:00

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대선 보도 리뷰(생중계 개선, 공약 분석 필요)

- 대선 보도에서 공약 분석 평가 약해.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. 또 후보별 정책이나 공약의 부족한 부분 등 정책공약 분석 시리즈도 검토할 만해(김경모 위원, 이석구 위원, 차경애 위원)
- '대통령 리더십 대토론회' 생중계 준비성 부족. 1시간 중계하다가 끊어버려.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해서 보여주겠다고 하든지 설명을 해줘야(한박무 위원)
- 11월 11일 11시에 문재인, 안철수 후보의 공약 발표 도중 뉴스Y, 톱뉴스로 강풍 및 수능을 보도하다가 끊고 바로 생중계로 넘어가 부자연스러워(한박무 위원)
- 후보 공약 발표에 대한 기자의 정리 설명에서 크로마키에 너무 큰 화면이 들어가서 기자나 앵커가 작아 보이고 사운드도 작아 전달력 떨어짐(한박무 위원)
- 좌측 상단 프로그램 타이틀, 위아래 박스 길이 밸런스 맞춰야(한박무 위원)
- 문재인 후보 발표 생중계에서 문재인 후보 얼굴 모습만 비춰. 객석, 취재진, 정책 공약을 띄운 화면 등 리액션 장면을 많이 보여줬어야. 카메라 질적 스킬 부족해(한박무 위원)
- 대선 후보 공약 발표 후에는 다른 뉴스로 넘어갈 게 아니라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 분석으로 즉각적인 검증해 줘야(홍승용 위원)
- '고성국의 담담타타' 등 대담 토론에서 (스튜디오 세트가) 토론자 간의 거리 너무 멀어(홍승용 위원)
- 공정성 문제를 고려해 대선 후보를 평면적으로 균등하게 보도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. 분위기를 쫓아가지만 말고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타사의 여론조사 보도보다 이슈에 대한 풀을 뉴스Y가 직접 시도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'뉴스 1번지' 대담에서 자료화면에 해당 없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산만(차경애 위원)
- '고성국의 담담타타' 중 빅3 후보의 모교 방문 내용에서 박근혜만 집중적으로 보도(이상목 위원)
- 유신출산 보도를 뉴스Y에서는 못 봐. 문화계 등 주변부도 고려해야(김정연 위원)

▲심층 국제뉴스 보도 필요

-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에 대해 심도있는 보도를 못해 아쉬워. 뉴스Y의 강점을 내

세워 동북아 질서 재편 등에 대해 시리즈로 내보냈으면(김경모 위원)

-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 단독 보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배경과 자세한 정황에 대한 정보는 없어(김경모 위원, 이석구 위원)
- 동아시아 정상회의 폐막 뉴스도 스케치성 기사만 내보내. 또 마지막 폐막 장면에서 현장음과 배경소리가 너무 커서 뉴스Y 기자 멘트가 거의 들리지 않아(김경모 위원)
- 미국 대선 보도도 한국적 시각을 견지해 시청자들이 이해시키고 판단하게 해야(이석구 위원)
- 미.일.중.러.프 지도자 교체에 대해 각 후보들의 외교 대응 자세가 어떠한지 언급이 없어.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한 리포트 내보내야(이상목 위원, 홍승용 위원)

▲ 자막 처리 및 용어 사용 신경써야

-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보도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엄마가 자살한 것이므로 '동반 자살'은 잘못된 표현.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(이석구 위원)
- 우측 상단에 로고나 시간이 같이 나올 때가 있고 좌측 하단에 입체적으로 계속 돌아가 산만해 보임(김정연 위원, 한박무 위원)

▲ 중요한 사회 이슈는 기획 보도 필요

- 전력 수급 문제나 원전 대책에 대한 기획성 보도 필요. 원인과 문제점,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책에 대해 기획 보도해야(차경애 위원, 이상목 위원)
- 나로호 관련한 기획기사도 내보내야(이상목 위원)

▲ 대담 진행 방식, 보도 방식 개선해야

- 출연자 간 격렬한 논쟁(북한 전단지 배포 관련 대담 등)이 있을 경우 진행자가 정리해 주는 진행 스킬 필요. 시청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음(김정연 위원)
- 자극적인 이스라엘-하마스 폭격 장면의 여과 없는 노출은 개선돼야(최종준 위원)
- 수도권계량기 동파 보도와 관련해 단순 현상과 사실만을 보도하기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함께 보도해야(최종준 위원)
- 그래픽, 자막 사용할 경우 오랜 템포를 두고 화면에 노출해야. 앵커의 대본 리딩 속도에 맞춘 자막 노출은 시청자들이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워(최종준 위원)
- 네티즌들의 '이시간 많이 보는 뉴스' 코너에서 사진 자료가 화질이 좋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아. 사진을 활용할 때는 전체 화면으로 보여줘야(이석구 위원)

▲ 프로그램 편성 등 제안

- 장애인 등 소외 계층 방송을 할 때는 당사자 불러 자문 구해야(이석구 위원)

- 지방뉴스는 종합뉴스 시간대라도 각 취재본부가 돌아가면서 방송해야(김정연 위원)
- 뉴스Y는 아침+글로벌+지방뉴스가 강해. 더 키워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야(홍승용 위원)
- 차별화로 주요 인사 동정, 주요 행사, 역사의 한 장면 사진 등 제공하면 좋을 것(홍승용 위원)
- '찾아가는 뉴스'는 시도는 좋으나 말로만 진행하다 보니 비디오가 오디오화하는 것 같아. 찾아가는 비디오 방식으로 형식 개선 필요(홍승용 위원)
- 'Y초대석'은 스튜디오 배경이나 앵글이 너무 단조로워(박영상 위원장, 홍승용 위원)
- '북한은 오늘'은 북한에 대해 재미, 지식, 정보를 주거나 특이한 화면이 있지 않고 평면적인 얘기만 해. 정치, 경제 등 집중 분석해 차별화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품격과 재미, 뉴스Y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간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(최종준 위원)
- 단순 보도가 아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필요(최종준 위원)

▲ 기타

-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패널 풀을 개발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보도채널화하고 있는 종편도 경쟁자로 보고 대비해야(한박무 위원)
- 남녀 앵커 얼굴 비율 신경써야. 뉴스에 집중이 안 되고 화면구도도 불안정해 보여(김정연 위원).